

보살의 길

2009년 거울호 제 40호



10월 3일 추석아침 제사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원장 박재근(현상)

존경하는 후원자님께

기축(己丑)년의 마지막 해가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습니다!

이제 기축 년 마지막 밤이 깊게 짙어지고 있습니다. 곧 새벽이 멀지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는 우주의 섭리일 것입니다.

지난 기축년은 어느 해 보다 국민들을 힘들게 한 해였습니다. 지나간 기축 년을 직장인들은 사자성어로 "구복지루(口腹之累)"라고 했답니다. 즉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경제적 어려움이 이 사회를 힘들게 했습니다. 또한 나라를 이끄는 정치는 우리를 혼란하게 하여 몇몇 대학 교수들이 사자성어로 표현하길, "방기곡경(傍歧曲徑)"이라 했습니다. 즉 정도가 아닌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정치가 정도를 걸어야 백성이 고달프지 않는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느 시절이건 그 사회가 정도를 걸지 않고 왜곡된 길을 가면 사회는 혼란에 휩싸이게 되고 편을 갈라 서로 상대질을 하며 싸우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후원자님! 기축년은 이런 시련들이 우리를 멍들게 한 세월이었습니다.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 양로원을 잊지 않으시고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뜻을 우리 양로원의 임직원 및 노인들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웃의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후원자님을 존경 하게 됩니다. 행복은 절대적인 부(富)가 아니라 상대적인 부의 크기에 좌우된다는 것을 후원자님은 이미 실천하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성숙해질수록, 세상과 자연의 이치에 경의심을 갖게 되고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치는 종교적 신앙과 신념의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후원자님!

노인부양은 가족의 문제에서 사회제도적 문제로 이행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노인부양의 국가예산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의 삶은 외롭고,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양로원 직원들이 성심을 다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려고 하나, 예산이 받쳐 주지 못하는 어려움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우리 임직원은 결코 실망 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불교경전인 반야심경에 다음과 같은 글이 있습니다.

"화안애어(和顏愛語)"라는 말입니다. 즉 평화로운 얼굴과 자비로운 말로 사람을 대하라는 뜻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고 평화롭게 됩니까? 이러한 이치(理)는 실천하는 태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불교에서의 동체대비(同體大悲)는 "중생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는 부처님의 자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주위에 있는 외롭고 고통 받는 이들에게 부처님의 자비의 사상(思想)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후원자님! 이제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로운 한 해가 온다는 것은 훗날 아프지 않을 추억을 만들어 갈 기회가 온다는 뜻도 있을 것입니다.

경인년(庚寅)은 백호(白虎)띠라고 합니다. 예부터 호랑이는 우리민족이 신성한 동물로 여겨 왔습니다. 이렇게 상서(祥瑞)러운 동물과 함께 새해에도 후원자님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나누어 주시면 양로원의 어른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후원자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부처님전에 기원 드립니다!

생활지도원이 말하는 2010년 새해 소망 한마디

*채명석

현재 내가 존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있어 행복한 지금, 우리 모두의 건강과 소망하는 것을 이루기를 기원합니다.

*박혜정

미소 띤 얼굴은 전화 목소리로도 상대방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미소 짓는 얼굴을 항상 보이도록 노력하자고 새해아침에 다짐을 해 봅니다. 우리모두 많이 웃어주고 기쁜 한해가 되시기를...

*하미숙

새해에 다짐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한해를 마감했을 때 다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간, 매일매일이 충실한 열매가 되어 큰 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릴 수 있도록 힘들더라도 파이팅 하시디.

*홍순의

2010년 건강하고 행복하여 근심·걱정없는 경인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양보금

그저 평범했던 한해를 돌아보며 함께 아파하고 슬피하며 함께 기뻐하고 웃을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백승미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일이라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나의 사람들을 더욱 더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60년만에 찾아온 백호랑이띠! 경인년 멋진 백호 처럼 올 한해 멋지게 파이팅~



공익근무요원
김두진

복무를 마치며...

2년간의 공익근무도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없지만 처음 들어오고서부터 약 10개월간 같이 있던 선배 공익요원과 함께 소집해제 날이 가까워지고 장난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습니다.

그러던 제가 지금은 어엿한 선배로써 후임들을 맞이하며 남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근무에 대해 조금 이야기 해 보자면, 이곳은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의 생활공간인 양로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에 불편한 점, 예를 들면 가구가 망가지거나 방바닥 장판이 썩어지거나 여름철엔 많이 쓰는 선풍기의 고장 등등 수리, 보수가 필요한 일에 시설에 계신 관리과장님과 함께 나서서 해결합니다.

물론 저희는 옆에서 과장님의 일을 보조하는 것 뿐이지만, 어느 정도 어깨 너머로 배운 지금은 가끔 직접 계 손으로 고치기도 합니다.

공익요원에게 주어진 일은 시설보수가 대부분이었지만 한 가지 특별한 일도 있었습니다.

바로 매주 마다 몸이 불편하신 할아버지 분들의 목욕을 보조 해 드리는 것입니다.

처음 목욕 보조를 한다고 이야기 들었을 때는 살짝 놀랐고, 여태 해본 적이 없는 일하기에 걱정이 앞섰는데 1주, 2주, 회차를 늘려갈수록 나름대로 할만 했고 또 뿌듯했습니다.

때면 힘든 일이지만 목욕이 끝난 후에 할아버지께서 웃는 얼굴로 진심으로 고맙다고 해주실 때 마다 피로감마저도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름엔 더위 에 고생하고 겨울엔 추운 곳에서 일했지만 배운 것도 많은 보람찬 2년 이었습니다.

가끔씩 이곳에서 배운 일을 생각해서 집에 가서도 이런저런 고장 난 것들을 똑딱 고쳐내는 자신을 볼 때 마다 그런 자신이 신기해서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학생시절엔 해 보지 않았던 봉사활동을 이렇게 조금 별난 방법으로 해 볼 수 있는 것에 대해 공익근무요원이 된 것에 작은 감사를 느끼고, 앞으로 봉사활동을 할 때엔 우리 양로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에 가야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주변 친구들이 봉사활동에 고민하고 있을 때 적극 추천을 해 주어야겠습니다. 별난 일이고 힘든 만큼 끝내고 집으로 갈 때 에 다른데서는 느끼지 못하는 색다른 뿌듯함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많은 것 을 안고 다시 사회로 돌아가는 공익근무요원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두진 공익요원은 2010년 2월 전역 예정입니다.

헤명한마당



[양현재단]

11월 18일 양현재단에서 방문하여 생일잔치와 영정사진 촬영을 하였습니다. 즐거운 공연과 맛있는 과일선물셋트로 어르신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물해 드린 양현재단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코디언 연주]

월 1회 오정자·유범열 선생님의 아코디언 연주소리가 은은하게 양로원에 울립니다. 구수한 연주 소리는 옛추억을 회상하며 저절로 노래를 흥얼거리게 합니다.



[백련사 잔치]

백련사에서는 20년째 매일 방문하여 할머니 컷트 봉사하고 계시며 12월 마직달에 하루 전에 신도님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으로 잔치를 열어 주시고 있습니다. 운경스님과 물림회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합니다.



[추석제사]

10월 3일 추석 당일아침 양로원 어르신들은 법당에서 합동으로 추석제사를 지내셨다.



[군고구마]

12월 20일 어르신들과 함께 군고구마를 구워서 나눠 먹었습니다. 속이 노란 딱딱따끈한 호박고구마를 서로 담소를 나누며 맛있게 드셨습니다.



[민주평화통일시대문구협의회방문]

12월30일 민주평화통일시대문구협의회에서 방문하여 입소자 전원에게 만원의 용돈과 점심대중공방과 간식을 후원하여 주셨습니다.



[영화관람]

12월 3일 할아버지 8명을 모시고 안양 CGV영화관에서 흥길동의 후예를 관람했습니다. 코믹영화로 어르신들이 재미있게 잘 관람했습니다.



[발레공연관람]

12월 23일 유니버설발레센터에서 호두까기인형을 관람했습니다. 처음보는 발레공연에 모두 신기한 눈으로 시중 관람을 했습니다. 관람의 기회를 주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송년회]

12월 23일 입소어르신과 직원들이 행복한 송년회를 가졌습니다. 게임과 맛있는 뷔페점심으로 이루어진 송년회는 시중 화기애현 분위기였습니다. 어르신과 직원모두 경안년 새해 더욱 행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혜명동정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근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여: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입소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증명서
4. 건강진단서(보건소발행)
5. 증명사진 4장
6. 우리은행 통장
7. 주민등록증, 도장

입소대상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직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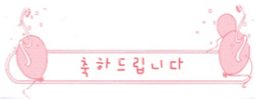
- ▶ 총 16명
- 원장 1명 / 사무국장 1명 / 시설과장 1명 / 간호사 1명 /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 생활지도원 5명 / 위생원 1명 / 서무 1명 / 조리원 3명

현재 입소인원

- ▶ 총 60명 (12월 31일 기준)
- 할아버지 : 27명 • 할머니 : 33명

2009년 하반기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7월~12월)

수입		지출	
후원금종류	금액	지출내역	금액
지정 후원금	1,321,500	사무운영비	6,236,140
		사업운영비	8,218,005
비지정 후원금	13,356,831	사업비	1,398,270
합계	14,678,331	합계	15,852,415



10월 17일 재충식과장님께서 혜명복지재단에서 수여하는 공로상을 받으셨습니다.

자원봉사자

2009년 10월 1일~12월 31일

이승희·민경숙, 소미숙, 최윤금, 박영숙, 유미애, 유은경, 한미정, 양영진, 김경은, 최의자(밀그램책실), 문덕녀(대림미용실), 전일도, 장경수(영동포교도소이발), 금천문화원무용반, 임호순외6명(치과진료), 금천보건소, 조규용, 윤소원, 조명영, 김용기(그신대침술봉사팀), 조기환(물리치료), 임지현(건강체조), 백련사울림회, 김하늘(차임댄스), 목향법사, 지영옥, 최미자, 이순교, 김덕순, 정지윤, 황득효, 지오스님, 임길자, 황복순, 이금분, 민귀남(찬불가봉사팀), 이현옥, 배규인, 장소영, 한봉옥, 이선영, 한미정, 이영옥, 최금옥, 임은영, 안영미, 지춘자(반야회3기), 오정자, 유병열(아코디언), 대한적십자사, 하정자, 송길숙, 오유리, 박미자, 엄숙희, 심은숙, 권태숙, 김진화, 이은경, 박애하, 마경숙, 이은경(반야회4기), 이유숙, 이미화, 송영순, 주양희, 신종일, 박현주, 박향자, 신경이, 황현숙, 박지혜, 정진숙, 안현준, 김중윤, 박상준, 최태영, 김재형, 이준호(반야회5기), 박미란(말벗), 김동섭, 한은옥, 한정옥, 남미영, 최소희, 고영수, 안성수(우당바라), 김도연(이야기시간), 이정순, 고병민, 권영순, 김미정, 박미옥, 전선순, 소미숙, 한종남(만들레도임), 조청길, 임영희, 안현숙, 현군자(수지침), 여은경(맺들체조), 최숙자(민요), 이강택, 양승학, 임효정, 황영이, 이정애, 한미옥(일송달송구연동화)

후원자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서는 넓은신 이해를 바랍니다.

물품후원

원각스님, 김창덕, 최숙자, 문백초6학년, 독지가, 백련사, 서서울생활과학고, 푸드뱅크, 서울교정청, 김기순, 혜영보육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윤분, 도선사, 여성이만드는미래, 혜명복지원, 박창숙, 홍은석, 반야회5기, 입소자가족들, 산영프레스전, 기업은행, 서울우유, 서울시청, 우리파이낸셜, 흥인기, 현성, 심진성유, 이지준, 청담종합사회복지관, 유인숙, 디노미디어, 최원숙, 찬불가혜명회, 색칠자원봉사팀, 만들레말벗자원봉사팀, 수유리독지가, 인천보살님, 진덕연회장님, 원일한의원, 양현재단, 민주평화통일시대문구협의회,

현금후원

윤재순 60,000 박성수 90,000 최형기 30,000 권가상 150,000 문금자 30,000 박두영 150,000
 구수미 150,000 구봉순 10,000 이정호 10,000 서현중스님 30,000 김가영 300,000 구충수 100,000
 한진택 300,000 백송룡 10,000 한국노인복지사실협회 77,400 한국증권선물거래소 600,000
 안정희 10,000 임옥수 1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200,000 은선사 30,000 구희근 90,000
 이은정 30,000 독지가 5,000 이복자 20,000 박혜정 30,000 양보금 30,000 구산 30,000
 조성환 20,000 유규동 30,000 안호주 600,000 백련사 700,000 마회전 80,000 박세진 10,000
 김동성 300,000 이순자 60,000 유석하 15,000 이종보 100,000 유복진 50,000 황형순 15,000
 황준순 15,000 이화정 200,000 서경연 30,000 남분식 150,000 이성현 5,000 김영옥 89,457
 강민수 5,000 강민성 5,000 한국해양조사협회 400,000 신관호 10,000 강마옥 260,000
 민주평화통일시대문구협의회 1,000,000

※가을로 후원금내역 중 윤재순님의 후원금은 120,000원이었습니다. 잘못기재됨을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후원내용** : 현금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등
생활품후원 - 락스, 피죤, 욕시크린, 각종 세제 류

정성을 기다리는 후원금 계좌번호

- 지로번호 : 7655940
-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예금주 : 해명양로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해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해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시흥역 마을버스급전 01번 범일운수 종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문디지털역 5617번 종점 하차
신림역 5413번 종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co.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해명양로원

발행인 : 박 재 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